



제9대 진주시장
취 임 사

진 주 시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큰 사랑과 지지를 받고
오늘 영광스런 민선 7기 제9대 진주시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새로운 변화와 부강한 진주를 기대하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진주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모두의 열망과 꿈을 함께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진주의 희망찬 미래, 부강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신명을 바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산(茶山) 정약용 선생이 말한 ‘공렴(公廉)’이라
는 단어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정(公正)과 청렴(淸廉)을 뜻하는 이 말은
제가 진주시장에 취임하며, 그 동안의 공직 생활에서 확립한 행정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진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다짐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년간 진주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신 전임 이창희 시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눈빛도 보았습니다.

진주의 현실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저는 진주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희망은 살리고
실망은 용기와 기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진주의 자존심을 되찾아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주의 명예와 긍지, 시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100만 진주시대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우리 진주는 예로부터 충절의 고을이자 고결한 선비의 고향으로
진주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입니다.

한때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고
문화예술의 발상지였으며,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교육의 도시입니다.
도심 중앙을 유유히 흐르는 남강과 더불어 천혜의 자연경관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중심도시의 위상이 상실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침체의 길을 걸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36만 시민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노출되었던 갈등을 화합과 상생으로 승화시켜 오로지 희망찬 진주 건설에 매진해야 합니다.

저는 시민이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오직 진주 발전에 대한 일념으로 시민 여러분은 물론 각계각층의 역량을 총결집시켜 반드시 부강한 진주를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 시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직 진주 발전을 위해 현장 행정을 과감히 실천하겠습니다.

민간 대기업, 서울시와 중앙부처, 경남도 등 30여 년간의 경제와 행정경험을 총 동원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에 앞장서겠습니다.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던 공약사업을 착실하게 실천하여 진주가 경남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사항 중에서도 필요한 공약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접목시켜 발전의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의 시정운영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감·소통하는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시민과의 데이트’를 상설화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 위원회’에서 해결점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과 치매전문병원을 유치하고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강, 문화, 일거리 제공 등을 위한 종합노인센터를 건립해
어르신이 편안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돌봄 공간 확대 운영과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주고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으며,

장애인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건립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시민안전 체험 홍보관 조성,
축구·배드민턴·야구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행복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진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3% 이상으로 점진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원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민간·가정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유치원 급·간식비 일부 지원 등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초·중·고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안전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를 전량 보급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남부·혁신도시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고
중·고생 등하교시간 맞춤형 버스노선제 운영, 입시전담정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일자리가 풍부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항공산단 내 첨단 앵커기업 유치로 통해 산단을 확장하여
지역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크박물관 건립, 실크연구원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해
향토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상평공단을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진주형 실리콘 밸리’가 되도록
세라믹, 신소재 등 업종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여
혁신산업단지로 재편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 개혁과 행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성장지원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
하겠으며, 진주를 중심으로 한 취업박람회 수시로 열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를 조기에 이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신선 농산물 지원 확대, 6차 산업 육성 등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넷째, 골고루 잘사는 부강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진주·사천·산청 통합을 추진하고
진주·사천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며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혁신도시 시즌2와 정주여건 개선,
초전 신도심 개발을 통해 경남의 중심도시이자
부강 100만 도시의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원도심 재생을 위해
아파트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구 시가지를 업종별 골목 테마거리로 조성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주차 빌딩 건립 등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통시장별 특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노선 조정,
지역 순환버스 복원, 브라보 택시 운영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내동오거리, 10호 광장 등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여 선진화된 도시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남강이 특별한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도심을 따라 흐르는 남강은 천년 진주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남강에는 우리 진주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이러한 남강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예술 공간을 확대하는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옛 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무료로 운영하여
전 시민이 즐기는 화합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진주성 내 경상도 관찰사의 집무실을 복원하여
진주성을 산 역사교육의 장과 머무르는 체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예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혜의 자연환경인 진양호에
호수를 조망하는 짚라인, 전망대 부근 스카이 워크, 둘레길 등
친환경 레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과 참다운 공직자의 모습으로 거듭나
시민과 공직자가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시민과 기업을 위해 발로 뛰는 공무원,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새로운 마인드 구축과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진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진주의 100년 미래를 위해
민선 7기 체제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이 다를 수는 있지만

살기 좋은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한 염원은 모두가 한결 같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화합하고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진주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진주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저는 민선 7기 동안 시정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통해
진주의 번영과 시민의 영광을 창출해 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 조규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일

진주시장 조 규 일